

다산포럼

송재소



며칠 전에 스페인을 다녀왔는데 세계 2위의 관광대국답게 볼거리들이 풍성했다. 천재적인 건축가 가우디의 작품을 보면서 경탄을 금치 못했고, 피카소를 비롯하여 그레코, 벨라스케스, 고야 등의 그림을 원화(原畵)로 감상하는 호사에 누렸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스페인 관광의 백미는 가톨릭 성당 구역이다. 스페인에는 도처에 수많은 성당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플라도의 대성당이다. 이 성당은 스페인의 수석성당이란 명성에 걸맞게 웅장하고도 화려하다. 1227년에 착공하여 266년만인 1493년에 완공된 대성당은 길이120m, 폭 60m, 중앙 천정의 높이가 45m에 이르는 거대한 건축물이다.

지금과 같은 현대적 기계 설비가 없던 시절에 이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건조물을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아마도 종교의 힘이었을 것이다. 스페인의 성당들은 마치 키 재가라도 하듯이 모두가 하늘 높이 솟아있다. 이것도 하늘에 계신

하느님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종교적 열망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나는 이 건축물들을 보면서 중세인들의 신앙심에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위압적인 성

당을 건축함으로써 교회의 권위를 과시하고, 일반 신도들의 경외심을 불러 일으켜 그것을 바탕으로 교회의 절대적인 힘을 행사하려는 의도는 없었을까?

제1차 십자군 원정 때 로마 교회는 강도 등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이들을 원정군에 동원했다고 하는데, 범죄자들로 하여금 원정군에 참가함으로써 죄를 용서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가 필요했다. 교회의 제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판매하는 행위도 교회의 확고부동한

권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늘 높이 치솟은 웅장한 성당은 이러한 교회의 권위를 지탱하는 하나의 요소가 아니었을까? 1517년 마르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하여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기기 전까지 로마 교회는 죽은 자의 면죄부까지 만들어 판매할 만큼 타락해 있었는데 그와 반비례하여 성당 건물은 더욱 웅장해진 것이 이를 반증한다.

사실상 참다운 신앙과 교회 건물의 크기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아닌가? 작지만 소박하고 아담한 성전을 짓고 그 안에

스페인의 성당

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올바른 길이 아닐까?

불교도 마찬가지이다. 꼭 크고 화려한 절을 지어서 거대한 부처님을 모셔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산속의 이름 없는 조그마한 암자에서 경건하게 정진하는 고승(高僧)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교회사 사찰이 신앙 본래의 본무를 이 탈하여 비본질적인 외적 규모나 양적 팽창에 관심을 가지면 타락하기 쉽다. 불교 조계종의 지도급 승려들이 호텔방에서

도박판을 벌인다가나 대형 교회의 목사들이 자식들에게 담임목사직을 세습하는 등의 행위는 이러한 타락의 한 징후라 볼 수 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최근 연평균 100여건의 교회건물이 매물(賣物)로 나온다고 하는데 대부분 교회 신축을 위해 빌린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중에는 꼭 필요한 건축도 있었겠지만 교회건물을 더 크게 확장하려다 파산한 경우가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안양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정(自淨) 운동이 주목을 끈다. 즉 안양시장의 권유에 따라 교회는 접합의 높이를 3m 정도로 낮추고 야간에는 십자가의 조명을 끄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한관회 안양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의 말은 더욱 신선하게 들린다. “교회에 접합이 높아지는 것만큼 교회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런 것은 절대 복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본질로 돌아가자는 그런 취지” 그렇다. 이제는 모든 종교인들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이다.

〈성공관대 명예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진보세력 선거비용 수사 논란 불식시켜야

통합진보당과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자들의 선거 당시 비용을 놓고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검찰은 후보자들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비례)이 최근까지 대표를 맡아 운영했던 선거대행업체인 CN커뮤니케이션즈와 짜고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고를 축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는 반면 이들은 ‘표적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대검찰청의 인력 지원을 받아 지난 14일 CNC로부터 압수한 서류들을 분석하는 한편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선거에서 당선된 뒤 중안선관위로부터 CNC 측에 집행한 12억 원 가운데 11억여 원을 보전받는 과정에서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렸는지의 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또 CNC에 선거홍보 등의 대행을 맡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광노현 서울시교육감 등은 물론 지난 4·11 총선에서 당선된 오병윤·김선동 의원 등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및 후보자들의

선거비 관련 자료도 압수해 같은 유형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양 교육감 측과 진보 정치권은 특정인을 겨냥한 의도적인 수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비용은 선관위의 엄정한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진보 교육감에 대한 흠집내기이자 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이 내세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고를 부정하게 빼돌린 ‘사기 사건’이라는 점에서 진보세력에 게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광주·전남교육계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러한 면에서 검찰은 수사를 속히 진행하되, 실체를 정확히 밝혀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진보세력에 대한 ‘여론몰이’로 일관한다면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양 교육감과 진보당 의원들도 몇몇하다면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해 의혹 해소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해양테마펜션단지 사업 재점검 시급하다

전남 해양테마펜션단지 조성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면서 사업 포기 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사업에 대한 적정한 투자심사 없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등 문제가 많아 재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도가 추진한 해양테마펜션단지에서 대한 감사 결과, 타당성 조사 없이 사업이 이뤄지면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도는 여수박람회 등의 숙박시설을 확보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목적으로 민간유지지를 통한 해양펜션단지 사업 후보지를 추천받아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5건, 1조6038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 대상인 500억 원 이상 사업임에도 적법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15개 사업 중 40%인 6개 사업자가 사업을 중도 포기한 상태며, 일부는 사업자가 변경

되기도 했다.

실제 여수 A해양단지 등 5개 사업은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인데도 총 사업비에서 민간유지 사업비를 제외한 뒤 재정지원 사업비(40억 원)만을 기준으로 시·군 자체의 투자심사만 거치고 사업을 추진했다 적발됐다.

또 6개 업체가 사업을 포기했음에도 해당 사업 후보지의 상수도,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에 110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등 예산을 낭비했다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감사원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불용 예산 반납을 해당 시·군에 요구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해양펜션단지는 전남 해안의 빼어난 경관과 일출,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자원을 활용,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남도와 시·군은 사업을 전면 재점검하고 적법한 추진을 통해 애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네팔에서 온 편지 ⑮



박현순

카트만두의 파탄쪽에 내가 자주 가는 ‘베이커리 카페’라는 식당이 있다. 이 식당에서는 매니저와 카운터 계산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업원들이 청각장애인들과 언어장애인들이다.

처음에는 좀 어색해 보였지만 자주 다니다 보니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하는데 별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음식도 맛있고 그 식당에서 식사하고 배탈 난 적이 없었다는 외국인 친구들의 소개를 받은 후로 단골이 되었다.

어느 날 2층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데 주문을 받으러 온 종업원이 말을 했다.

그것도 네팔어나 영어가 아니라 “한국에서 오셨어요?”라고 약간은 서툴지만 분명한 우리 한국어로 인사를 했다. 자기는 한국에 근로자로 가기 위하여 EPS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고 순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자기소개를 했다.

이렇게 서로 안면을 익힌 후 내가 식당에 들어가 자리를 잡기만 하면 그 친구가 만면에 웃음을 띠고 주문을 받으러 온다. 그는 몇 마디의 한국어를 연습하고 나 역시 몇 마디 네팔어를 연습하기도 한다.

얼마 전 네팔 신문에는 한국에 근로자를 보내는 15개국 중에서 네팔이 가장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한국에 고용 인력을 보내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한국은 봉급을 많이 주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우도 좋아서 네팔인 근로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나라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네팔의 가장 큰 수입원이 관광 수입이 아니라 한국,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네팔 근로자들의 송금이

라고 한다. 이런 근로자들이 벌어들이는 외화들이 네팔의 발전을 위하여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서독에 광부로, 간호사로 나가서 일하거나, 중동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여 벌어들이 돈들이 개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한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했던 것을 기억한다.

네팔 EPS 센터의 김병천 센터장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노동조합의 결성을 허용한 나라가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했다. 우리가 그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외국인 근로자 노동조합의 대표가 네팔인이라고 했다. 네팔인들이 영어를 할 뿐만 아니라 한국말을 잘하고 리더십이 있어서 대표로 뽑힌 것 같다. 제발 큰 문제 일으키지 말고 한국인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 간에 적절한 중재역할을 잘했으면 좋겠다.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이런저런 사정

으로 제때에 월급을 못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있겠지만, 정신 못 차린 외국인 근로자들 때문에 무던히도 속 썩는 한국인 고용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안다.

이 베이커리 카페 식당은 안에서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우리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곤 한다. 이 식당 근처에서 행인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구걸하는 할머니와 어린 젊은 아이가 있다. 두 사람이 가족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동업자임에는 틀림없다. 그들이 식당에 들어가려는 손님들의 소매나 옷자락을 부여잡고 배고프다는 시늉을 하면서 돈을 달라고 조르는 것을 흔히 본다. 지저분한 물결에 강물이나 양재기를 들이대면서 식당에 들어가려는 손님을 질요하게 앞을 막아서면서 방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 번도 매니저가 이들을 쫓거나, 손님을 위하여 식당 문을 열어주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어쩌면 식당 주인은 그 결인들이 자기 업소 앞에서 벌어먹고 살라고 목인을 하는 것 같다. 베이커리 카페는 특별한 식당이라는 생각이 든다.

〈파탄의대 객원 교수·전남대 명예교수〉

기고



유현호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한 F1대회와 함께 전라남도 개도 이래로 가장 큰 국제행사인 여수 박람회는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켜 남해안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고 있으며, 내년도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로 이어질 것이다.

이들 행사는 성공적 개최도 중요하지만, 이들 국제행사를 성상 동력으로 삼아 국가 발전의 중심을 수도권에서 남해안 축으로 옮기는 이정표라는 데서 국내외적으로 의미가 크다.

먼저, 남해안은 수려한 자연 경관, 남도 특유의 문화·예술자원, 해양성 온화한 기후를 가져 연중 해양관광과 해양 레저 스포츠가 가능한 동북아 관광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 보유하고 있다.

학원버스 대부분 특약보험 가입 안돼 불안하다

어린 학생들이 학원 차에서 내리다가 봉고차 뒷바퀴에 깔려 사망하는 사건이 종종 일어난다. 이럴 때마다 학원 차 관리가 소홀하더니, 안전요원이나 교사도 탑승하지 않고 운전자에게만 맡겨서 그렇다더니, 앞으로는 당국이 철저히 지도 감독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느니 하는 대책들이 언론에 무수히 나온다.

우리나라는 학원 버스 천국이라고 해도 얼마 전에도 경기도 부천에서 그런 사고가

또 일어났다. 그 뒤에 들리는 얘기로는 학원 버스 운전자 과실이라고는 하지만 학원 버스가 특약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소식이 나왔다.

학원과 운전자 모두 다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아서 그 피해 부모가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하니 도대체 뭘 믿고 아이들을 학원 차에 태워서 내보낼까.

우리나라는 학원 버스 천국이라고 해도 과연 아니다. 대형 학원은 물론 소규모 보

습학원에서도 셔틀 봉고차를 운행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 버스가 도로에 즐비하다.

그러나 경찰청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 버스는 단 5% 뿐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현재 법적으로 통학 버스를 운행하는 학원이 자가 차량을 어린이 통학 버스로 신고할 의무가 없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등록 어린이 통학 버스가 버젓이 운행을 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사정을 잘 모르고 있다. 학원 차량의 절반 가량이

일명, 지입 차들이다. 개인 차주가 학원과 계약을 맺고 아이들을 실어 나른다. 학원 이름을 달고 달리지만 실제 버스를 소유한 사람도, 운행에 책임을 지는 사람도 개인업자인 셈이다.

다만 건 몰라도 학원 차에 탄 아이에게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해주는 운송특약조차 가입돼 있는 비율이 5%도 안 된다니 사고 시 대책이 없는 것이다. 정발 업체까지 이런 걸 뻔히 알면서 아이들을 학원 버스에 태울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

▲유민규·목포시 수강동

인터넷에서 만나서 광주일보

www.kwangju.co.kr

無等鼓

올림픽과 신화의 나라. 발칸 반도 남단부와 주변 섬들로 이루어진 서양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 명성을 날렸던 그리스는 이제 세계경제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그리스는 지난 2010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부터 국가 존망의 갈림길에 서있다. 수차례 거듭 금융 지원을 받아온 그리스는 파판드레우 전 총리가 국정 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는 등 곡절을 겪어왔다. 그리스는 2011년 11월 유로존과 IMF(국제통화기금)에서 6차분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아가며 간신히 국가 부도 사태를 막아냈다.

지난 5월 총선에서 정부 구성에 실패한 그리스는 17일 2차 총선에서 유로존의 ‘구제금융 조건’ 이행을 공약한 신민당이 승리함으로써 일단 파국은 막았다. 이에 유로존 정부들도 그리스에 구제금융 지원 대가로 요구한 재정 긴축과 경제개혁 이행에 시간을 좀 더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나와 최악의 상황은

비켜갔다.

문명과 낭만의 국가 그리스가 깊은 수렁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학자들은 경제구조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리만 부도 사태 이후 건설한 생산기반을 갖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그리스처럼 관광 등 서비스 산업에 의존도가 높은 남유럽 국가들은 쉽게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내부 요인이 더 크다는 진단이다. 세계 유수의 언론들은 그리스 경제난의 가장 큰 이유로 부유층의 부정 부패와 국민의 조세 회피를 꼽았다.

그리스 부유층과 권력층의 부정부패가 워낙 만연한 데다, 세금을 제대로 내면 나쁜 손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 국가재정 파탄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부패하고 무능한 권력층과 이를 따라하려는 국민이 그리스 위기의 ‘공범’인 셈이다.

/박치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汶洙			논설주간 申博榮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지) 광주광역시 동구 금곡로 27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마케팅국	2200-9600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